

이슈페이퍼 2013-07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 대책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1. 서론	1
가. 연구 목적	1
나. 연구방법	1
2. 심층면접가구의 특성	1
가. 일반적 특성	1
나. 결혼 및 출산 현황	3
다. 영유아 자녀의 일반적 특성	4
라. 남한생활의 만족도	6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7
가. 양육 환경	7
나. 양육실태	10
다.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13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대책	16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주대상자로 재검토	16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법적 정의 필요	16
다. 북한이탈주민 현행 거주정책 재검토	17
라. 하나원에서부터 체계적인 부모교육 실시	17
마.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해증진 도모	18
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참여 유도	18
사. 저소득층 아동지원통합서비스사업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연계 구축	18
참고문헌	19

표 차례

〈표 1〉 심층면담조사 대상자	2
〈표 2〉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결혼 및 출산 현황	3
〈표 3〉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영유아 자녀 현황 및 기관이용 실태	5
〈표 4〉 육아지원기관 하루 이용시간	12

그림 차례

[그림 1] 북한이탈주민 거주 주택형태	7
[그림 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자녀 어린이집 이용여부	10

1. 서론

가.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어려운 점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이에 따른 자녀양육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아울러 이들 가정의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외에도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있는 양육환경의 특징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고찰 및 실태보고서, 통계자료, 법령 등 고찰
- 심층면접조사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부모 30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3명

2. 심층면접가구의 특성

가. 일반적 특성

- 대다수는 함북출신이며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등중졸자들임.¹⁾ 사례 14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어머니)임.
- 현재 가족유형은 양부모 가정(부부+자녀) 형태가 15사례로 가장 많으며 한부모 가정 12사례, 조부모가 함께 사는 확대가족은 3사례임.
- 탈북시기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직후인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이며 가장 최근에 탈북한 사례는 2010년임(사례 24).

* 본고는 이윤진·이정림·김경미(2012)의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임.

1)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의 북한 학력을 보면, 70%가 고등중졸임(출처 www.nkrf.re.kr, 검색일 2012년 4월).

□ 이들 어머니 대다수는 현재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태임.

- 남한에서 정규직을 가진 경우는 단 한 사례임(사례 15). 직업을 가진 경우 계약직(사례 28)이나 일용직(사례 15, 25, 30)임.

〈표 1〉 심층면담조사 대상자

사례 번호	출생 연도	출생지	자녀수	탈북일	입국일	북한학력	북한직업	남한직업	현재 가정유형
1	1969	평북	2	2005	2005	고등중졸	농사	주부	양부모
2	1966	평북	3	1998	2004	공장대학	장사	주부	양부모
3	1973	함북	2	1997	2006	고등중졸	장사	주부	확대가족
4	1976	평양	2	2005	2005	고등중졸	농사	주부	양부모
5	1973	함남	2	1998	2003	체육대학중퇴	체육대학생	제조업(정규직)	양부모
6	1968	양강도	2	2004	2005	고등중졸	계약회사 판매원	주부	양부모
7	1971	함남	1	2005	2006	고등중졸	회사원	주부(前보험설계사)	한부모
8	1973	함북	4	2004	2004	고등중졸	기술직	대학생	양부모
9	1971	함북	1	1999	2007	고등중졸	탄광회사수출직업	대학생	양부모
10	1981	양강도	1	1998	2008	고등중졸	-	주부	양부모
11	1970	함북	2	2006	2006	고등중졸	장마당	주부	양부모
12	1976	함북	3	2005	2006	고등중졸	노동자	주부	확대
13	1973	함북	2	2002	2006	고등중졸	광산업	식당	양부모
14	1971	함북	1	1997	2002	고등중졸	농사	무직	확대
15	1978	함북	2	1998	2003	고등중졸	-	판매원	한부모
16	1978	함북	2	1998	2005	고등중졸	선전대	대학생	한부모
17	1979	양강도	3	2001	2006	고등중졸	-	주부(前결혼정보회사)	한부모
18	1981	함북	1	2004	2007	고등중졸	미싱사	대학생	한부모
19	1973	함북	2	2000	2004	고등중졸	육상선수	사무보조원	한부모
20	1973	함북	2	1997	2002	고등중졸	제품검사	-	한부모
21	1971	함북	1	1997	2008	농업전문학교	-	주부(前식당일)	양부모
22	1972	함남	2	1997	2007	고등중졸	방직	주부(前전자제품검사)	양부모
23	1975	함남	3	1999	2003	고등중졸	농사	주부	양부모
24	1983	양강도	1	2010	2011	고등중졸	학생	주부	한부모
25	1979	함북	1	1998	2006	고등중졸	학생	판매원	양부모

(표 1 계속)

사례 번호	출생 연도	출생지	자녀수	탈북일	입국일	북한학력	북한직업	남한직업	현재 가정유형
26	1975	함북	1	1999	2007	고등중졸	-	대학생	한부모
27	1973	함북	1	2003	2006	고등중졸	노동자	주부	한부모
28	1972	함북	1	2002	2007	대학졸	소학교교사	보건소근무	한부모
29	1981	함북	1	2006	2006	고등중졸	여군	-	양부모
30	1977	함북	2	2007	2007	고등중졸	이발사	편의점알바	한부모

주: 자녀수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임.

나. 결혼 및 출산 현황

- 결혼과 출산은 사적 영역이라 응답자가 밝히기를 꺼려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면, 결혼을 2회(이상) 한 경우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총 17사례임.
- 북한에서 가족을 이룬 총 13사례들 중 2사례(사례 4, 11)만이 지금까지 유지됨(표 1, 표 2 참조).
 -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탈북과 입국 기간이 짧다는 점임.
 - 중국에서 가족을 이룬 사례들—재혼 포함은 총 13사례이며 이 중 11사례(사례 1, 2, 3, 5, 6, 9, 10, 12, 13, 21, 22)—이 현재까지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서 가장 안정적임(표 1, 표 2 참조).
 - 남한에서 가족을 이룬 사례들(재혼 포함)은 총 11사례이며 이 중 가족이 해체된 경우는 6사례(사례 7, 15, 16, 17, 18, 27)임.
- 자녀의 국적은 북한, 중국, 남한 등 다양함. 이는 같은 형제자매라도 출생국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녀의 아버지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음.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복잡다단함을 보여주는 대목임(표 2 참조).

〈표 2〉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결혼 및 출산 현황

사례 번호	배우자 국적 및 결혼 횟수(○)				자녀 출생국(동거 ○, 비동거×)		
	북한	한족	조선족	남한	자녀1	자녀2	자녀3
1	○		○		북한(○)	북한(×)	남한(○)
2	○	○			중국(○)	남한(○)	남한(○)
3	○		○		북한(사망)	중국(○)	남한(○)
4	○				남한(○)	남한(○)	-
5			○		남한(○)	남한(○)	-

(표 2 계속)

사례 번호	배우자 국적 및 결혼 횟수(○)				자녀 출생국(동거 ○, 비동거×)		
	북한	한족	조선족	남한	자녀1	자녀2	자녀3
6	○		○		북한(○)	남한(○)	-
7	○			○	북한(×)	남한(○)	-
8	○			○	북한(○)	남한(○)	남한(○), 임신중
9			○	○	중국(사망)	중국(×)	남한(○)
10			○			남한(○)	
11	○				북한(○)	남한(○)	
12	○		○		북한(○)	남한(○)	남한(○)
13			○		중국(○)	남한(○)	
14		○				남한(○)	
15				○	남한(○)	남한(○)	
16				○	남한(○)	남한(○)	
17			○	○	중국(×)	중국(×)	남한(○)
18				○	남한(○)		
19			○		남한(○)	남한(○)	
20	○				남한(○)	남한(○)	
21			○		남한(○)		
22			○	○	중국(×)	남한(○)	
23				○	남한(○)	남한(○)	남한(○)
24	○				북한(○)		
25				○	남한(○)		
26		○			남한(○)		
27				○	남한(○)		
28	○				남한(○)		
29				○	남한(○)	임신중	
30	○				북한(○)	남한(○)	

다. 영유아 자녀의 일반적 특성

- 다음 <표 3>은 <표 2>의 자녀 중 영유아만을 추려서 이들의 일반적 특성 및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여부·이용시기 등을 정리함.
- 영유아 자녀들은 남한출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함(사례 24만 북한태생).
 - 2011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의 89.7%가 남한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 3〉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영유아 자녀 현황 및 기관이용 실태

구분	영유아 자녀 일반적 특성					어린이집이용 여부 및 시작시기	
	해당 자녀수	출생 년도	성별	출생국	건강 상태		
1	1	2007년	남	남한	허약	이용	생후18개월
2	1	2007년	남	남한	건강	이용	생후12개월
3	1	2008년	여	남한	건강	이용	생후36개월
4	2	2006년	남	남한	허약	이용	-
		2009년			건강		
5	1	2010년	남	남한	건강	이용(사립유치원)	-
6	1	2008년	여	남한	건강	이용	생후7개월
7	1	2008년	여	남한	정서불안	이용(사립유치원)	생후2살
8	2	2006년	여	남한	건강	이용	생후8개월
		2008년					
9	1	2010년	남	남한	허약	이용	생후6개월
10	1	2012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
11	1	2009년	여	남한	건강	이용	생후15개월
12	2	2007년	남	남한	건강	이용	생후 2살
		2011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
13	1	2008년	남	남한	질병	이용	생후 3개월
14	1	2009년	여	남한	허약	이용	생후12개월
15	1	2006년	여	남한	건강	이용(병설유치원)	생후 4살
16	2	2006년	남	남한	건강	이용	생후18개월
		2007년					-
17	1	2009년	여	남한	건강	이용	생후4개월
18	1	2012년	남	남한	건강	미이용	-
19	2	2007년	여	남한	건강	이용	생후 3살
		2009년					
20	1	2006년	남	남한	ADHD	이용	생후12개월
21	1	2009년	남	남한	산만함	이용	생후 3살
22	1	2011년	남	남한	건강	미이용	-
23	2	2006년	여	남한	건강	이용	생후12개월
		2012년					생후8개월
24	1	2009년	남	북한	건강	이용	생후 3살
25	1	2009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
26	1	2010년	남	남한	건강	이용	-
27	1	2009년	여	남한	건강	미이용	-
28	1	2007년	남	남한	건강	이용	생후10개월
29	1	2007년	남	남한	건강	이용	생후 3살
30	1	2008년	남	남한	건강	이용	-

라. 남한생활의 만족도

□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9.3%가 만족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임(출처: www.nkrf.re.kr, 검색일: 2013년 4월 10일).

- 만족하는 주요 이유로는 '내가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48.0%, '북한 생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47.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40.4%를 꼽음(복수응답결과).

□ 본 면담조사에서 많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에서 가난과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남한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음.

내가 대한민국을 왜 좋아하나면. 내가 하고픈 말을 하고 살아서 좋아요. 속에 품고 있으면 그게 다 병이 되는거예요.……우리 남편이 장애인이고 내가 아파 이래도 내가 부지런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 나라 땅은 내가 하고픈 말 맘대로 하고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북한은 안그래요. 말한마디……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해요. 진짜 같이 말해 놓고도 가서 이렇게 고발하면은 우리는 감옥에 가고 못나가고 그래요. 근대 말도 마음대로 하고 이러니깐 그게 너무 좋은거예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다 해도 북한만큼은 안받아요(사례 3).

- 배우자의 폭력, 이혼이나 별거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남한 생활에 만족스러워했으며(사례 11, 사례 18)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가정은 그 만족도가 더욱 높았음(사례 29).

(폭력적인 남편으로 가정생활은 행복하지 않지만) 남한의 자유가 좋아요. 처음에 와서는 생활총화라는 게 없어서 좋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게 없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살려면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요(사례 11).

저는 본인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해요(사례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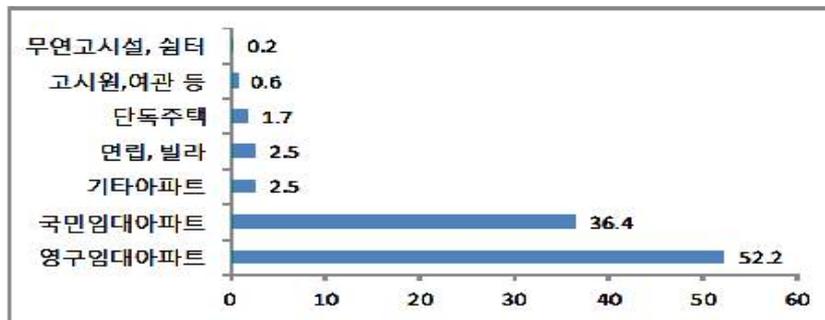
저는 만족해요. 여기서 불만족하다 그러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요즘은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혼하고, 특히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정말 행복한 거죠(사례 29).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가. 양육 환경

□ 주거환경: 북한이탈주민 가정 밀집 거주

- 북한이탈주민의 88.6%가 특정 지역의 임대아파트에 밀집해서 거주함. 이러한 주거 환경은 낯선 남한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남한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제약이 될 수 있으며 남한사회로의 동화에 지체될 수 있음.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출처: www.nkrf.re.kr, 검색일: 2013년 4월 10일)

[그림 1] 북한이탈주민 거주 주택형태(%)

(질)남한 엄마들하고는 교류가 있으세요? (답) 그건 전혀 없어요(사례 1).

애들과는 달리 남한엄마들은 (친해지기가) 조금 힘들죠. 우리집도 모이면 다 북한사람들만 모여요(사례 3).

주로 만나거나 전화하는 사람은 다 북한 사람들이예요. 남한 분들하고 친하게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임 나가도 다 북한 사람들이고……(사례 10)

아이 키우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 장난감이나 학원 정보 같은 것은 가끔씩 북한 엄마들 만나서 정보를 얻어요. 남한 엄마들하고는 안 만나요(사례 12).

북한사람들이 00단지에 모여 사니까 북한 말만하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만약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너네 엄마 이상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그래서 큰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억양을 여기 말투로 고치고 싶어요(사례 16).

- 남한 사회의 빠른 적응정착을 위해 하나센터에서는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을 일대일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듯함.

하나센터라는 곳에서 남한 사람 한사람과 새터민 한사람씩 일대일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서로 친분도 갖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바쁘니까 전화 한번씩 오는 정도고 집을 찾아오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흐지부지 해 지고, 실제 프로그램은 있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사례 23).

□ 정서적 환경: 협소한 공간에서 가정폭력 노출

- 북한이탈주민이 배정받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25.7평 이하(85제곱미터)인데, 가족수에 따라 배정받는 평수가 달라짐. 배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평수는 큰방 1개, 작은방 1개, 거실 겸 부엌, 화장실 1개로 구성
- 공간의 협소함 자체가 문제는 아님. 부부관계가 원만하거나 부모와 자녀관계가 화목한 가정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음.
 - 화목한 가정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고 있음.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의 원천은 가정에 있으며 그 원동력은 원만한 부부관계(사례 3, 사례 5, 사례 29) 또는 한부모 가정이었다도 주양육자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사례 30)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아빠를 닮아 애가 그렇게 성격이 좋아요. 우울할 때가 없어요. 언제가 밝아요. 학교가서도 상장도 많이 땀어요. 한 학기에 상을 5개씩 우수상, 최우수상……(사례 3).

아이들은 여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언어도 그렇고 친구들도 많더라고요(사례 5).

엄마 아빠가 안 싸우니까 애기도 너무 쾌활하고 다른 애들처럼 뭐 사달라 뭐 사달라 하지 안하요…착하고 인사성도 밝고 참 요대로만 커줬으면 좋겠어요(사례 29).

큰 아이는 여자애가 그런 지 착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아직까지 공부는 하려고 안하더라고요(사례 30).

- 문제는 협소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임. 실제 이러한 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애들 앞에서 나한테 막 00뿌리고 손찌검하고 하니까. 그것도 일 년에 한 번 정도면 모를까……(사례 3).

남편이 술만 마시면 애하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는 게 10%라면 물건을 던지고 때려 부셔요. 그래 가지구 계속 새 것을 사는 거예요. 빔을 지면서요(사례 11).

□ 부모(주로 아버지)의 가정폭력이나 가부장적 훈육방식으로 자란 이들 자녀들은 불안증세, 정서적 장애 등을 겪고 있었음.

- 아버지의 가정폭력이나 가부장적 태도로 자녀가 분리불안이나 정서장애 증세를 보임. 사례 9는 폭력이 대물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우임.

우리 00는 편식이 좀 심해요. 안 먹는 건 입에 물고 있다 뱉어 버릴 때도 있고, 자꾸 토하고, 애가 자꾸 토해요. 우유 먹다가도 분수 뿜는 것처럼 다 토해서 저한테 다 뿌려버리고, 저 애 키우면서 별 오만가지 짓 다 해본 것 같아요(사례 9).

저희 아들이 놀다가, 여자 아이를 발로 밟았대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해야되는데 그 표현을 안 한대요……저희 옆에 동네 아이도 때려가지고 혼났어요. 저희 아들이 책으로 때려가지고……(사례 9)

(작은) 애가 어린이집 소리만 하면 막 기절을 해요. 그래서 얼마간 안정하고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그리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서 있으면 어디 가느냐고 하면서 애가 막 울어요(사례 11).

- 우울증을 겪은 어머니의 억압적인 훈육으로 자녀가 정서적으로 예민함.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옆에 없단 느낌만 들면 베개 들고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딸깍 하고 소리만 나도 코를 골다가도 안자던 사람처럼 일어나요. 큰 아이는 징징거리면서 그래요. 제가 울지 말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라고 해요. 모든 투정으로부터 시작되요. 그래서 큰 아이랑 마찰이 심해요(사례 16).

-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으며 또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과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둘 이후부터 떼어놓아 그런지) 애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짜증이 많아요. 애기 때부터 저녁에 애가 자지를 앓고 막 손톱으로 내 얼굴 쥐어뜯고 그래요(사례 7).

(첫째, 둘째)둘 다 ADHD인가 그것을 치료를 받으래요. 저는 아이가 스스로

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밥이나 해주고 엄마가 열심히 사는 거 보여주면 아이도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사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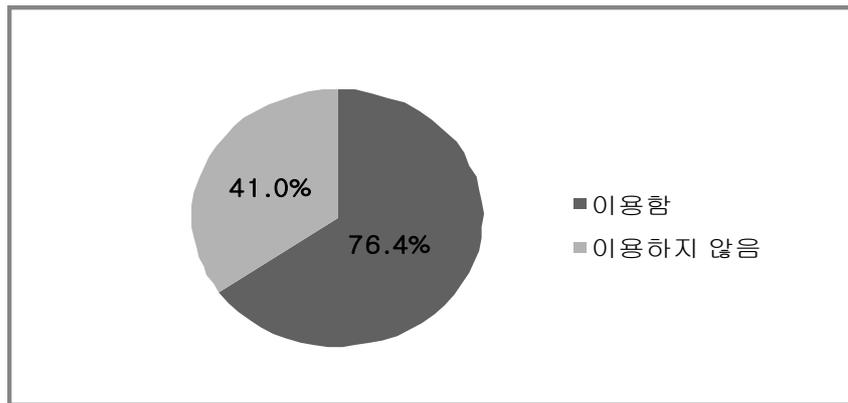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에 의하면, 또래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행동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함.

또래 유아들에 비해 고집이 센 편이며, 친구와의 소통보다는 자기주장을 많이 내세우는 편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울음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원장면담 사례 2).

유난히 욕심과 고집이 유난히 강하고, 공격성이 강해서 또래 친구하고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원장 면담 사례 3).

나. 양육실태

- 총 24사례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음.
 - 기관 미이용은 신생아 또는 1세 영아들임(사례 10, 사례12, 사례 18, 사례 22, 사례 24, 사례 26).
 - 2011년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에서 영유아 자녀의 76.4%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응답함.



자료: 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출처: www.nkrf.re.kr, 검색일: 2013년 4월 10일)

[그림 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자녀 어린이집 이용여부

- 이용하는 기관종류는 어린이집 23사례, 유치원 3사례(사립 2, 병설 1)로 어린이집 이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남한에서의 생활수준이 하류층 45.7%, 중하류층 26.3%라고 응답하여(2011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실제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 50.5%, 100~150만원 미만 27.2%²⁾(경찰청, 2010; 출처 www.nkrf.re.kr 검색일: 2013년 4월 10일)로 응답하여 약 78% 가정이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업료가 비싼 사립유치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함. 기본보육료는 전액지원을 받아서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정도 지불하고 있으며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역시 지원받고 있음.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거의 없었음.

처음 입학비 5만원 내고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특별활동비로 4만 8천원을 내고 있어요(사례 1).

특별활동비 3만 5천원을 내고 놀이동산(현장체험학습) 간다고 하면 입금해 줘요(사례 3).

어린이집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낸다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배워주는 비용(특별활동비)은 내구 있어요. 전의 어린이집은 한달에 99,000원을 냈었는데 지금 옮긴 어린이집에서는 6만 5천원 내고 있었어요(사례 13).

특별히 기관에 내는 돈은 없고 우유 값만 내고 있었어요(사례 23).

어린이집 이용은 무상이예요. 특별활동비도 없어요(사례 16).

어린이집에 돈을 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00에 살았을 때는 특기적성비나 현장학습비로 매 월 7만원씩 냈어요. 그런데 여기로 이사와서는 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내요(사례 17).

-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기고 싶은 사례도 있으나, 수업료가 싼 공립병설유치원은 입학하기가 까다롭고 사립유치원은 비싸서 이용이 어려움.

병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안 하다보니 탈락했어요. 사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정부보조금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40만원

2) 12,205세대 중 100만원 미만 6,164사례, 100~150만원 미만 3,324사례로 집계됨.

을 더 내라고 하니깐 둘이(자녀가 2명) 합치면 월 80만원을 더 내야 되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입학 전)한 두달 만이라도 유치원에 보낼까 생각하고 있어요(사례 23).

□ 자녀가 어릴 때부터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루 이용시간도 8~10시간이 57.4%로 가장 많아서 장시간 이용하는 특성을 보임.

-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고정적인 직업은 없지만 아르바이트 일감이 있거나(사례 9, 사례 11)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사례 13, 사례 17, 사례 28)는 자녀가 어리더라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애가 2010년 6월에 태어났는데 그 해 12월에 어린이집을 보냈어요(사례 9)

(작은 애가) 돌 지나고 15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애를 젖 떼고 보냈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사례 11).

요리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00를 낳고 생후 3개월짜리를 놀이방에 맡기고 요리를 6개월 배웠어요(사례 13).

(직장을 다닐 때)생후 4개월부터 3살까지 가정어린이집에 보냈어요(사례 17).

생후 10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깐……. (중략) 훈련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직업 훈련을 갔어요(사례 28).

- 많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8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음(64.8%). 오히려 미취업모 집단에서 8시간 이상 이용 비율이 60.0%로 가장 높게 나옴.

〈표 4〉 육아지원기관 하루 이용시간

	단위: %(명)					계(명)
	5시간 미만	5시간~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일정하지 않음	
전체	0.6	33.6	57.4	7.4	0.8	100.0(178)
연령별						
영아	1.9	28.8	57.4	7.7	1.9	100.0(106)
유아	-	36.2	59.6	6.9	-	100.0(60)
미취학아동	-	41.7	50.5	8.3	-	100.0(12)
모직업 여부						
있음	-	41.7	33.3	25.0	-	100.0(12)
없음	0.9	23.7	60.0	5.5	0.9	100.0(166)

자료: 장명립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p.208.

- 폭력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례 11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례 9는 본인의 학업 공부로 인해 하루 12시간 정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음.

식당일을 하면서 늦게까지 맡기게 되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례 11).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에서 8시까지 맡겨요 (사례 9).

-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 64%가 만족한다고 응답함(장명림 외, 2009: 211).

원장님이 정말 잘 돌봐줬어요. 혹시 우리 아이를 때리지 않는 지, 창문에서 가만히 들어봐도, 큰소리 한번 내지 않아요. 원장님이 생후 4개월부터 다 길러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이번에 옮긴 어린이집도 좋아요(사례 17).

- 그러나 면담조사를 통해 불만족한 사례로 종종 발견할 수 있었음. 어린이집에서 땀에 적은 옷이나 음식 쓰레기가 묻은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서,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면서 자녀를 잘 부탁한다고 했지만 교사는 신경을 써 주지 않아서 섭섭함을 토로함.

어쨌든 구립을 보내고 나서 후회 많이 했어요. 내가 괜히 보냈나……두껍게 입고 간 옷도 그냥 하루 종일 입고 애가 옷을 적시면 그걸 다 벗겨야 되잖아요.……애가 옷이 젖어서 그냥 와요(사례 9).

지저분한 옷 갈아 안 입히고 이런 거 보다도, 거기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선생한테 말은 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학할 때 제가 그랬지, 전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전 여기 말도 잘 모르고 아이도 나이 들어 낯아서 아이가 연약하다, 그리고 애가 남들보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사례 9).

다. 자녀양육의 어려운 점

- 학습지도의 어려움

- 북한에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은 영어 등의 외래어가 섞인 남한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나는 다른 곳에 특별하게 지원한다기 보다는 눈높이(같은 학습지 지원) 이런 걸 차라리 해줬으면. 왜냐하면 특별하게 돈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영어

모르잖아요. 북한사람들 특히 영어 안 배우니까. 뭐 무슨 우리 00이 보니까 지금 6살인데 노래 부를 때 보니까 고깔모자 A 볼록볼록 B.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6살이 저렇게 하는 정도면 어느만큼 얼마나 따라가야 TV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떡하냐. 속으로 걱정이죠(사례 1).

- 외래어뿐 아니라 남한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녀의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함. 사교육으로 이를 해결하고 싶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다고 함.

애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교과서를 집에 가져왔는데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예요. 저도 안 되고 저의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배워줄래야 배워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내려고 학원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사례 2).

-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학습지 바우처와 같은 직접적인 학습지원 서비스를 원함. 실제 서비스를 받은 사례는 학습지도의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함.

(애가) 엄마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애들 초등학교 공부도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개별 학습지도를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바우처로 했을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르쳐보자 했었는데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일대일로 하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사례 23).

□ 북한과 다른 남한의 양육문화

-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키움. 예컨대 북한의 탁아소·유치원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아서 도보로 20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유아가 걸어 다님.

남한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감싸면서 키워요. 북한은 감쌀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한에서는 유치원이 끝나면 아이를 데려오는 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이 여기서 거리가 걸어서 20분 걸려요. 그 거리를 아이 혼자 다녀와요. 부모는 일해야 하니까. 학교 갔다 와서도 아이 혼자 놓고, 아이들 끼리 놓고 그래요. 북한 엄마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처음 갈 때,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만 학교에 가요. 한 번 데려가면 길을 아니까, 저희도 다 그렇게 컸어요(사례 12).

○ 남한의 사교육 극성과 높은 학업스트레스

한국 부모들이 애가 머리가 좋은 아님든 공부를 하든지 안하든지 무자비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들어가고, 부모들은 그 돈 벌기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사례 7).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에 많고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은 북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한은 어린이집부터 공부를 시키는데, 북한은 유치원때 자유롭게 생활하거든요. 북한은 사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과 남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떠나서 북한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여기는 자유가 없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어디에 묶여야 되잖아요. 북에선 공부를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거든요(사례 16).

북한은 어린이집은 크게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아이를 잘 봐달라고 뇌물이 좀 들어가요. (남한은)아이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사례 27).

□ 대리양육자 부재

- 대부분 개인단위로 입국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맡길 수 있는 친인척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친정이나 시댁의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는 추이지만,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거나 건강, 취업 등의 이유로 자녀를 맡기기는 쉽지 않음.
- 대리양육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여의치가 않음.

작은언니가 근처에 살고는 있지만, 시력이 안 좋아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요(사례 10).

아이 둘만(2004, 2006년생) 집에 두고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사례 15).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이를 안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해요. 차라리 돈이라도 많으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면 그만한 돈도 없고요(사례 27).

□ 자녀 정체성의 문제

- 북한이탈주민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탈북가정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는 특히, 자신이 탈북가정이란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한다고 함.

엄마는 북한 새터민, 아빠는 중국 조선족이지만, 아이는 여기서(남한) 태어났고 국적이 남한이잖아요. 당연히 여기 사람이죠. 나랑 아빠에 관계없이. 주변의 눈총 그런 거 없이 그냥 보통 남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사례 10).

엄마가 북한 출신이란 사실을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아직은 어려서 말을 해줘도 모를 것 같아서요. 아이가 모르고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왕따 주지 않을까 걱정되요.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어요. 어떤 엄마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자기 아이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엄마가 이북에서 왔다는 것으로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사례 13).

아이들도 정체성 혼란이 올 때가 있었어요. 큰 아이는 저한테 왜 우리는 말투가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사례 16).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두 살 때 왔기 때문에 재는 (엄마가 북한 사람인 거) 하나도 몰라요. 저는 북한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게 좋아요. 북한 사람들이 집에 올 때가 있으면 애들 앞에서는 북한 말 하지 말라고 해요. 북한말 이제는 싫어요, 되게(사례 30).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대책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주대상자로 재검토

- 현행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영유아에 대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정책대상자는 성인과 청소년임을 의미함.
 - 북한 또는 제3국(중국) 출생의 영유아에게 취업장려금과 학자금 지원이 보장되는 보호기간 5년은 무의미하며 남한 입국 후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데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함.
 - 남한태생 영유아는 법적으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 대상도 아님.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정책의 중요한 정책대상자로 인식 전환 필요함.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법적 정의 필요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인 단위에 초

점을 둔 법령으로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 탈북, 제3국 체류, 입국, 그리고 남한에서 정착하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해체와 재구성이란 복잡다단한 과정을 겪으면서 다문화가정과 구분되는 독특한 속성을 지님. 같은 형제지만 국적과 성(姓)이 다르고, 생부와 현재 아버지가 다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가족구성원마다 다름. 탈북가정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법적 정의가 필요한 대목임.

다. 북한이탈주민 현행 거주정책 재검토

-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민족이란 점에서 외국인과는 분명 다름. 외국인들은 새롭게 이주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금의 밀집 거주방식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임. 남한출생 자녀들은 북한출생 자녀하고는 정체성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이라 볼 수 없음.
 -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지닌 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단계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밀집 거주방식의 재검토를 제안함.

라. 하나원에서부터 체계적인 부모교육 실시

- 하나원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비중있게 실시할 것을 제안함.
 - 북한에서처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는 남한에서 원만한 가정을 꾸리기란 어렵다는 점을 부모교육을 통해 깨우쳐 줄 필요가 있음.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탈북가정의 성공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주요 요인이 아버지, 남편에게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 하나원 퇴소 후에서 이러한 부모교육은 지속되어야 하겠음.
 -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부모교육을 위한 방안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격월로 배달되는 「동포사랑」 잡지에 육아컬럼 지면을 확대하여 자녀 연령

별, 발달단계별 자녀양육 방식과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 있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승강기 내에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정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는 우리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 부모교육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된 자녀양육지침서 또는 자녀양육매뉴얼 책자를 개발하여 하나원 및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배포·보급을 제안함.

마.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해증진 도모

-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음. 이처럼 육아지원기관은 이들 가정의 육아지원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의 원장과 교사는 이들 가정의 특성과 자녀를 이해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함.
 - 원장과 교사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함.

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에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참여 유도

- 북한이탈주민이 100명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가 다니거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밀집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 독려가 필요.
 - '지역협의회'가 1년에 1~2회 형식적인 모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협의회' 산하의 실무분과(또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실제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참여토록 하고 원장선생님도 실무분과의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제안함.

사. 저소득층 아동지원통합서비스사업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연계 구축

- 북한이탈주민 부모들도 어느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건강하고, 또래와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기를 희망함.

- 이러한 바람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같은 일반 저소득층 아동지원통합서비스 사업과 이들 가정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함.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초학습능력 형성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서비스를 이미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새로운 지원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이 재정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 운영했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실효성도 크다고 볼 수 있음.
- 드림스타트센터는 북한이탈주민 거주 밀집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제안함.

참고문헌

- 이윤진·이정림·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이윤진·이정림·민현숙·이세원·송윤정·소수정(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웹사이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www.nkrf.re.kr 검색일: 2013년 4월 10일